

(주소) 16614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8525 (팩스) 031-898-7889

배 포 일	2024.12.10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즉시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에 첫 발을 내딛다. 12월 20일 '바깥 포럼 1895' 개최		1		www.ggcf.kr/	부서 : 조사연구팀 담당 : 윤소영 전화 : 031-231-8525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에 첫 발을 내딛다. 12월 20일 '바깥 포럼 1895' 개최 - 20세기 무명의병, 21세기 어디에 둘 것인가? -

- ▶ 2024년 경기도 한말 무명의병 기념사업 인문포럼 개최
 - 12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수원 경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개최
- ▶ 정신적 가치를 찾는 철학과 문화비평 대담
 -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길 원하는 자극에 반응하는 기본자세에서 오늘의 사회적 위기에 필요한 가치를 찾는 논의
 - 민족혼, 조선인 열등설을 반박하는 애국심과 자치역량, 순국선열 애도에 더해질 21세기 기념주제 보완 및 다각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12월 20일 경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20세기 무명의병 21세기에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인문포럼은 2024년 초 제정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작된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 중에 학술활동의 일환이다. 일제강점기 민족혼, 애국심, 자치역량,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에 애도로서 20세기 기념양식을 계승하고, 변화된 21세기에 걸맞는 기념주제를 찾기위해 필요한 지식을 나누는 공론장에서 정신적 가치를 모색한다.

이길 수 없음을 알지만, 죽음의 두려움을 덤덤히 받아들였던 과감한 모험의 연대가 공동체에 기여한 역사성,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경이로운 인간

적 가치가 사라져 가는 최근 경향을 정치철학과 문화비평으로 해명한다. 소멸과 분열의 시대 생존전략을 서로 다른 반응 조건에서 찾아보고, 향후 무명의병 기념사업에서 다루어지면 좋을 철학적 의제를 이야기한다.

▲박구용(전남대 철학과 교수) ▲이택광(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 대담자로 무대에 오른다. MC유성(작가 유흥일) 사회로 토론을 진행하며, 관객과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역사, 예술, 철학을 사랑하는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누리집(<https://members.ggcf.kr/login>)을 통해 사전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이지훈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장은 역사적 사실이 정보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이어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행사로 기획했다며,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무명의병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남다른 주제의식을 갖고 싶은 창작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